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매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아침묵상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경건생활의 시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

지난 주 (5/14)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33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2:1-11

말씀선포 Sermon 눈물로 쓴 편지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이우선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월 28일 6월 4일
전주은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Timothy Keller

미국 복음주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목회자로 손꼽는 뉴욕 맨해튼 리더머교 회 팀 켈러 목사님(Timothy Keller, 1950-2023)이 지난 금요일 72세의 나이로 조금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몇년전 췌장암이 발견되어 치료중이었으나 합병증으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자마자 뉴욕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와 잠시 만난 적도 있었고, 그분의 설교와 강연을 직접 들은 적도 있었기에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였습니다.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와 그의 삶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말하고는 그것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 할 때, 그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실재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암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 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전 가족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 마신 후 마지막 기도를 내 뱉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 님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소서”

그는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호흡처럼 내 뱉은 후 삶을 마감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이 그의 소천 소식에 슬픈 마음을 갖습 니다. 그의 생은 끝났지만 그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계 속 남아 주의 도를 따르려는 주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